

# 박수민, 송수아의 기도편지

영혼구원 | 제자양육 | 세계선교

안녕하세요? 더운 날씨 가운데 잘 지내시는지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건강과 삶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관심, 기도, 섬김을 감사드리며, 2023년 상반기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 세례식과 교회사역

7월17일에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도쿄 닛포리 국제교회 4개 예배당에서 17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한 분 한 분 간증이 정말 감동적입니다. 특히, 두 명의 초등학생, 두 명의 중학생이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저는 학생들과 세례준비 공부를 하



면서 이들이 교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신앙인으로 자라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세례식 날은 일본의 공휴일이라 형제, 자매들 143명이 함께 참석해 세례 받는 분들을 축복하고, 시원한 계곡 물에서 하루의 휴식을 즐겼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공동체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계속해서 새로운 분들을 보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양들을 놓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 잘 섬겨, 이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기를 기도합니다. 저희에게 선한 목자의 심장과 열정을 부어주소서!

## 전도대회



5월20일부터 6월4일까지 저희가 섬기는 JCC 주관으로 일본 전국의 6곳의 도시에서, 7번의 전도집회가 열렸습니다. 코로나로 잠시 멈추었다가 4년만에 열린 이번 집회에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전국적으로 1,368명이 참석하고, 36명이 결심카드를 작성했습니다. 지방의 경우 중국인보다도 일본인 참석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이번 전도대회는 이전의 집회 형식과 많이 다른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인 Sandra 자매의 스토리가 있는 피아노 콘서트 형식의 집회였습니다. 그런데 집회에서 사람들의 호응이 매우 좋았고, 어린아이들도 즐겁게 참석해 오랜 시간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저희는 이번 집회를 통해서 일본인 전도의 새로운 가능성을 봤습니다. 주님이 다양한 사람과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 동아시아 기독교청년대회



동아시아 기독교청년대회가 2월22일-24일까지 3년만에 일본에서 대면 모임으로 열렸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의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와 찬양으로 서로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대회가 횡수를 거듭할수록 사람들 사이의 만남이 깊어지



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몇 몇 젊은이들 사이에는 국적을 떠나 깊은 지체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동아시아 대회 한국위원회는 그동안 한국측 파트너로 애써 주었던 청어람이 자체사정으로 사임하게 되었고, 새로운 교회와 단체들로 재구성 중에 있습니다. 동아시아 기독교청년들이 신앙적으로 연대할 수 있는 장이 지속되고, 이 세 나라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들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합니다.

**도쿄 다니엘 국제학교**



2023년 신학기에 도쿄 다니엘 국제학교에 새로운 학생이 5명 입학했습니다. 다수의 1학년생들이 들어오니 학교 전체가 더욱 신선해졌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멋진지요! 이번 학기에는



단기선교, Music show 등을 통해서 학생들의 성장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변화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2월13일-16일은 학교 필리핀 단기선교로 톤도지역을 방문해서 방과후 학교를 섬겼습니다. 학생들이 프로그램 전체를 구상하여 준비하고 영어로 현지 선생님들과 협력해서 진행했습니다. 또한 신입생들과 함께 4월13일-15일까지는 캠프를 갔습니다. 캠프를 통해 자연에서 호흡하고 깊은 교제를 누렸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호주에서 John Kim 선교생님이 단기선교사로 와서 영어를, 한국에서 Janny Lim 선생님이 와서 아이들에게 한국어, 한국댄스와 노래를 가르쳤습니다. 두 헌신된 젊은이의 사랑과 열정이 한 학기 내내 학교를 활기와 축복으로 꽉 채워 주었습니다.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감사, 찬양드립니다.

**코로나 이후 회복된 만남과 왕래**



코로나로 굳게 닫혔던 일본의 문의 열리면서 일본을 방문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멈추었던 각종 모임, 집회, 회의가 속속 다시 열리고 있습니다. 거의 매주 손님이 있고, 저희 집에 머무르기도 하고, 저도 출장이 잦아졌습니다. 만남이 많아지면서 즐거움도 시간 사용도 배로 늘고 있습니다. 더 바빠지긴 했지만 역시 사람은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23년 상반기 누렸던 중요한 축복은 “만남의 회복”과 “만남의 깊이”였습니다. 사람을 만나 한 공간에서 같이 식사하고, 이야기하고, 일상을 같이 보내면서 친밀감과 신뢰가 커졌습니다. 만남의 축복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안식의 시간을 시작하며**



저희는 6월19일부터 10월20일까지 4개월간의 안식월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 기간의 사역은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했지만, 사람인지라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번 안식의 시간을 통해 지난 2016년 케냐 안식년 이후의 섬겼던 사역들을 돌아보고, 숙고와 새로와지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몸과 마음의 쉬, 그리고 지인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에너지와 창의성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2016년 도쿄로 돌아온 후 지금까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 개의 교회가 네개의 예배당으로 분리 개척하며 성장했고, 각 예배당이 자기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 가운데 닛포리와 나리마스 베다니 예배당은 새 예배당을 헌당했습니다. 또한 세 명의 헌신자가 신학훈련 과정을 거쳐서 목사로 안수 받았고, 이들의 뒤를 잇는 헌신된 스텝들과 신학생들이(저희 교회만 7명)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 교회가 좀 더 선교에 헌신하게 된 것은 큰 수확입니다. 교회는 두명의 해외 선교사와 7명의 신학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인 디아스포라 사역을 넘어서 일본어 예배(지금은 국제예배), 베트남어 예배가 생겼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도쿄 다니엘 국제학교가 설립되어 16명의 학생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학교는 저희에게 큰 부담이요 많은 에너지를 요구하지만, 동시에 굉장한 축복입니다. 학교를 통해서 사역적으로 새로운 세계가 열렸습니다. 학생들의 변화와 성장, 학생들을 통한 각 가정의 변화, 학교를 섬기는 선생님들의 성장은 저희의 큰 기쁨과 보람입니다. JCC(일본 화인 크리스천 센터)의 전도대회 및 기타사역과 동아시아 기독교청년대회도 나름의 자기 자리를 잡았습니다. 책임 맡으신 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잘 섬기고 계십니다. 그리고 일본의 중국인 디아스포라 교회에서 해외선교사 파송을 위한 정기기도 모임이 시작되었고,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사역자 그룹(유학생 출신 헌신자들, 새로운 이민 그룹)을 지원하고 협력하는 목양자 모임도 시작되었습니다. 일본에 오래된 화교그룹과 구별되는 일본유학의 경험을 가진 젊은 교회 개척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건강한 교회를 많이 세울 수 있도록 저희가 힘 닿는대로 돕고자 합니다. 그동안 안식의 시간은 늘 저희를 새로운 단계로 들어서게 해주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기대와 기도를 하며 안식의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저희의 힘이요, 능력입니다.

## 가족 이야기



저희 첫째 희주가 6월30일에 드디어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졸업했습니다. 희주가 최선을 다해 이 길을 걸어 왔기에 가족 모두 큰 감동으로 졸업식을 맞이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올 가을 부터는 UC Irvine에서 평소에 하고 싶었던 전공을 공부하게 됩니다. 놀라운 은혜요 기적입니다. 미국생활에 잘 적응하고 행복한 기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회원이는 행복한 안식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재다능한 회원이가 안식월을 통해 쉬와 힘을 얻고, 자신의 미래를 잘 그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송수아 선교사는 오랜만에 학교 사역에서 한 발 물러나 쉬와 충전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박수민 선교사는 교회 사역으로 잠시 2주간 도쿄를 다녀 오긴 했지만, 안식월 시간을 통해서 많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잠시 멈추고 돌아보고, 감사하고, 다짐하고, 새로운 문을 두르려 본다는 자체가 은혜요 축복입니다. 감사합니다.

## 기도제목

1. 안식월 기간동안 몸된 교회와 사역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2. 안식월을 통해 저희 가족 모두가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충전되고, 새로워지기를 기도합니다.
3. 하나님께서 저희의 지속되는 이동과 만남을 안전하고 순적하게 지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박수민, 송수아 올림